

주일학교 캠프, 이래도 좋은가요?

김문희 아오스딩 신부

신부님! 안녕하세요? 25살의 중고등부 교사 바오로입니다.

요즘 여름캠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캠프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보면 이게 '주일학교 캠프가 이래도 좋을 ?'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캠프도 교리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캠프 프로그램은 교리 수업처럼 하느님에 대해 배우고 신앙을 키울 수 있게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덜 재밌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교사들은 이런 걸 크게 고려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흥미 위주 프로그램 짜는 데에만 신경 쓰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 담력 훈련이나 최신 유행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댄스 타임, 물총 싸움과 같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겠죠. **신앙 교육과는 관련 없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하느님은 잊고 재미만 추구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물총 싸움하고 담력 훈련이 하느님과 무슨 상관인가요?**

조금 덜 재밌더라도 '하느님'에 대해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동료 교사들은 여름캠프에서 저런 프로그램들은 절대 빼면 안 된다고 하네요. 회의 시간마다 저 말고는 다들 의견이 척척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만 계속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꼴이지요. 다들 좋다고 하는데 저만 아니라고, 잘못 된 거 아니냐고 하니 언제부터인가 전 회의 시간에 다른 교사들 의견에 초를 치는 교사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혹시라도 제 의견만 맞는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동료 교사들을 대하고 있는 건가요?

찬미 예수님! 바오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에 대한 소개가 없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지면으로나마 이렇게 만나고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몇 년 정도 교사 생활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력과 상관 없이 선생님께서 주일학교 안에서 겪는 이런 내면적인 갈등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동료 교사와 주일학교 안에서 행하는 신앙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차이가 나면, 힘든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선생님만이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 중심 주제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캠프가 아이들이 일반 사회에서 접하는 다른 캠프와 차별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일학교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리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곳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특별히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일학교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는 교회의 교리가 지니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이나 행사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주일학교의 모든 것들은 항상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이나 신앙 교육과 관련이 없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들의 도입은 당연히 우리가 주일학교 안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주일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리교육들이 결국에는 '교육'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어른들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시켜 줍니다. 물론 '신앙 교육'이라는 설명이 더 붙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누구도 아닌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사실은 교리교사로서 주일학교에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히 심리학자이자 아동 교육자였던 마리아 몬테소리(1870-1952)의 교육 이론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흔히 '몬테소리 교육법'이라고도 전해지는 마리아 몬테소리의 교육 이론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존중하는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몬테소리는 아이가 놀이를 중시하고, 놀이의 여러 과정을 통해 감각과 행동이 향상되는 것을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야기했지요. 이후 그녀는 많은 교보재를 개발하였고, 놀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지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도록 배려하는 교육 방식을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이들의 감각을 긍정적으로 자극시키는 것이 교육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교육관에서는 아이들의 인격이 존중되고 아이들의 눈높이 안에서 교육이 실현되는 것이 항상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육 환경에서 마리아 몬테소리의 교육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관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르게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몬테소리 교육관은 아이들의 방식이 존중 받아야 하고 아이들의 놀이 세계가 교육에서도 받아들여져야 함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의 “조금 덜 재밌더라도 ‘하느님’에 대해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놀이와 재미를 느끼는 활동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관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항상 아이들의 흥미와 재미가 고려되어야 하고, 이는 분명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 교육’ 이더라도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복음 말씀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에게 충분히 깊이 있는 묵상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마태 19, 13-15).

주일학교 교리교육의 내용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야 할 의무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 아이들의 방식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되묻게 만듭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 어른들이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 원칙들은 과연 얼마나 교육적인가? 교육은 교육을 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교육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하는가?’ 신앙의 진리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피교육

자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이들 교육에서 ‘재미’나 ‘놀이’가 어른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중요한 관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즘 새로 생긴 신조어 중에 ‘에듀테인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과 즐거움을 뜻하는 ‘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재미있는 학습을 위해 학습과 놀이를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현재 아이들의 교육에서 즐거움과 놀이는 빠질 수 없는 중요 요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 본질은 항상 변하지 않지요. 신앙의 진리에 대한 내용 없이 단순히 재미를 찾는 것은 주일학교 교리교육의 관점에서는 분명 잘못된 방식이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교육의 대상자인 아이들의 환경과 권리를 고려해야 할 의무도 주일학교 교사에게는 항상 부여되는 부분입니다. 교리의 내용과 전달 방식. 이 두 가지가 서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아이들은 주일학교의 많은 부분에서 하느님을 더 가슴 깊이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관점을 존중하지만 동료 교사들의 노력도 분명 의미는 있습니다. 동료 교사와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의 관점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주일학교 교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선생님과 아이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도 합의점을 찾아나가며 좋은 주일학교 캠프를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신앙의 진리를 잊지 않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바오로 선생님의 멋진 모습도 기대합니다. 파이팅! 🍀

김문희 아오스딩 신부
서울대교구 사제, 현재 용산 성당 보좌와 1지구 초등부 지도 신부를 맡고 있다.